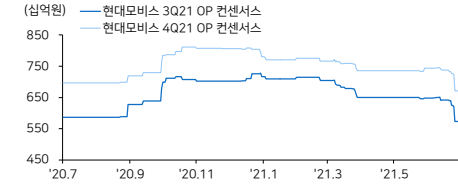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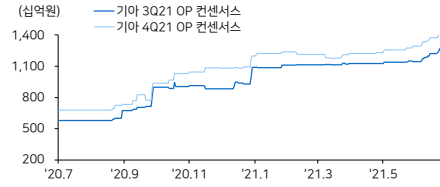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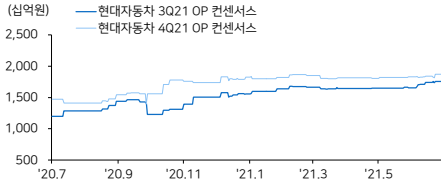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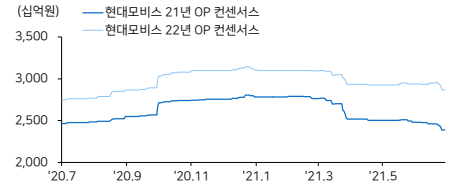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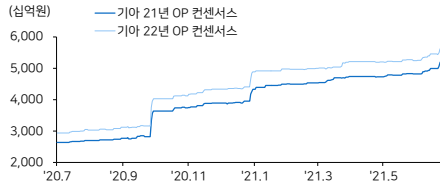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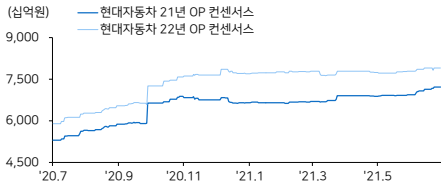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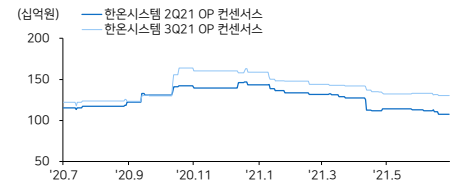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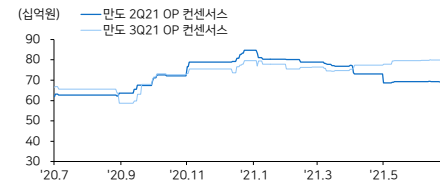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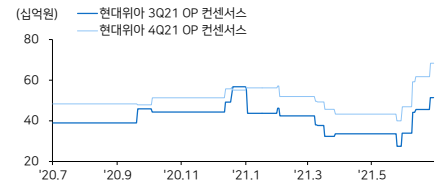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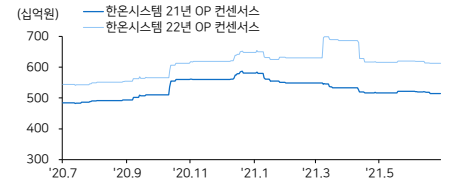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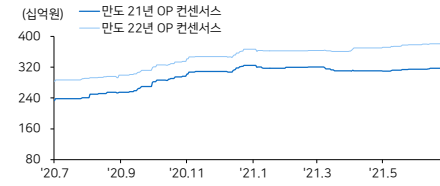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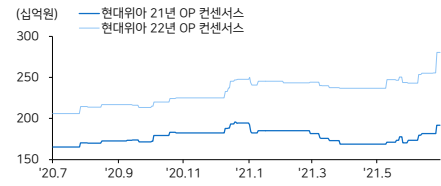


##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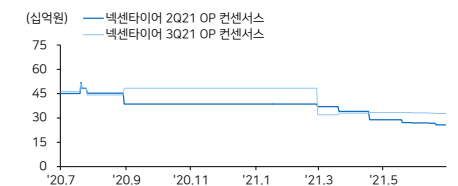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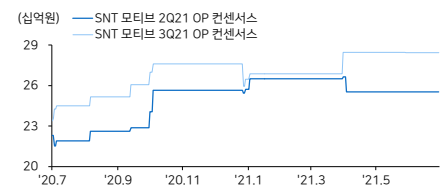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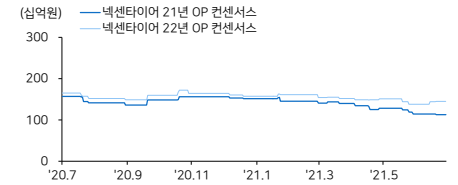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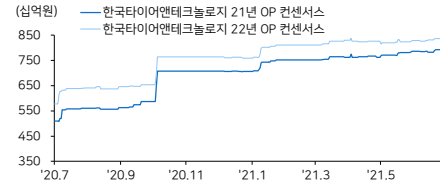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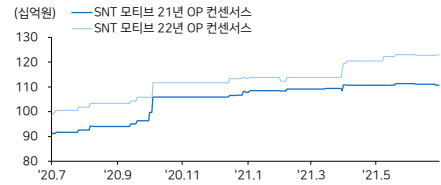
### 현대차 / 기아 / 현대모비스



### 현대위아 / 만도 / 한은시스템



### S&T모티브 / 한국타이어 / 넥센타이어



자료: Bloomberg,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

## 국내외 주요 뉴스

### '아이오닉 5' 출시되기 전인데...현대차그룹 친환경차, 美 판매 급증 (조선비즈)

올해 1~7월 현대차·기아는 미국에서 총 6만1133대의 친환경차를 판매하여 YoY +205% 증가. 동기간 현대차와 기아는 미국에서 총 94만8,723대를 판매하여 YoY +44.9% 증가. 친환경차 판매 증가는 전체 판매 성장세를 크게 웃돌음.  
<https://bit.ly/3fz2l2r>

### 현대차, '윤인원' 구독 서비스 글로벌 첫 선...EV 대중화 속도 (헤럴드경제)

현대차 영구구독인인 5일 현지에서 보험과 긴급출동 지원, 유지 보수 및 수리를 모두 포함하는 월간 구독 서비스 '모션'을 출시. 월 구독료는 한화 약 54만원으로 부담을 줄임. 3~24개월까지 비대면으로 신청하고 차량을 배달받을 수 있음.  
<https://bit.ly/2Vp9jFJ>

### 전기차 전환 가속 페달 밟는 美...GM·포드 "2030년 판매 절반" (서울경제)

로이터는 GM·포드·스텔란티스 등을 포함한 자동차 제조사들이 5일 백악관 행사에서 '30년까지 전기차 판매 비중을 4~50%로 늘리겠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보도. 이는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수준.  
<https://bit.ly/3xqcfCQ>

### Tesla teases future products using A.I. not related to its electric vehicle fleet (Electrek)

테슬라는 8/19 예정된 AI DAY에서 슈퍼컴퓨팅, 신경망 훈련 관련 업데이트 내용을 볼 수 있을 예정. 기존 Musk는 차량 관련 역량만을 강조해 왔으나, 이번 AI DAY에서는 테슬라 차량을 넘어서 AI 적용단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것이라고 언급.  
<https://bit.ly/3yqwd8E>

### 현대차, EV 충전업체 '한충전' 인수자 실사 착수 (전자신문)

현대자동차가 최근 충전업체 인수를 위한 실사에 착수하며 독자 충전인프라 확대와 운영에 나섬. 충전업체 인수가 이뤄지면 현대차그룹은 완성차 업체로 유일하게 독자 충전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됨.  
<https://bit.ly/3jGDECL>

### 현대모비스, 에이치엘그린파워 100% 자회사 편입... 자본 285억 규모 인수 (MoneyS)

모비스는 LG에너지솔루션이 보유한 에이치엘그린파워 지분 49%를 285억원에 인수해 지분율 100%를 보유. 이번 인수를 통해 배터리 시스템 구축 위해 UAM산업 육성을 위한 공동 연구개발 협력/교류를 통한 산업 구제화 등 추진.  
<https://bit.ly/3l23mvl>

### 대한항공, 도심항공모빌리티 상용화 위해 공공기관과 손잡아 (비즈니스포스트)

대한항공은 인천국제공항공사,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'도심항공모빌리티 상용화를 위한 연구개발 협력 협약'을 맺음. 운항 통제 및 교통관리 시스템 구축 위해 UAM산업 육성을 위한 공동 연구개발 협력/교류를 통한 산업 구제화 등 추진.  
<https://bit.ly/3fucspP>

### 토요타, 美 의회 로비 논란...'전기차 준비 시간 벌기' (THE GURU)

일본 자동차 완성차 업체 '토요타'가 미국 의회를 상대로 전기차 도입을 늦추기 위한 로비를 한 사실이 밝혀짐. 그동안 하이브리드 기술 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단행하며 열을 올린 만큼 아직 자사의 전기차 경쟁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.  
<https://bit.ly/373upTi>

## Compliance Notice

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.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.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.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.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.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, 대여, 배포 될 수 없습니다.